

사계절 무더위와 한여름의 폭염으로 상신할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당첨후환영10억수준 프리미엄계시)
- 무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산제 실시
- 예약: www.npdynashy.co.kr 0801-320-7700

한기위 연휴에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추석 연휴 동안 프로야구에서는 본격적인 가을잔치 채비가 펼쳐지고, 프로축구는 풍성한 서비스로 팬들을 유혹한다.

프로야구 중위권 싸움 분수령

◇프로야구=시즌 막바지로 향하면서 4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위 SK 와이번스는 10일 현재 69승 36패로 2위 두산 9.5게임차로 여유롭게 따돌리고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사실상 확보해 두었다.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는 승차 없이 2·3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은 5위 한화 1.5게임차로 아슬아슬하게 4위를 지키고 있다.

한기위 3연전은 중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대구구장이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 2위

를 노리고 있는 롯데와 4위 고수에 총력전을 펼 삼성이 대구구장에 맞붙는다.

타선의 침묵으로 5위까지 내려앉은 한화는 문학구장을 찾아 SK를 상대로 꺼져가는 4강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4강 싸움에서 배제된 KIA는 잠실 원정에 나서 두산을 상대로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일전을 펼치게 된다.

목동구장에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하이오즈와 LG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 40승72패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 LG

추석 연휴 스포츠는 계속 된다

는 구단 역대 최소승(47승)의 불명예를 면하기 위해 출격한다.

◇프로축구=1위 수원 삼성(13승1무2패·승점 41)과 2위 성남 일화(11승5무1패·승점 38)의 선두 경쟁이 뜨겁다.

수원은 승점에서 앞서있지만 골득실에서는 +21로 성남(+23)에 뒤지고 있다.

점 17), 11위 전북 현대(4승4무9패·승점 16)는 6강 희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승점을 쟁겨야 한다.

세 팀은 각각 포항 스틸러스, 성남 일화, 광주 상무를 홈으로 불러들여 한기위 승리를 노리게 된다.

박주영 빠진 FC 서울의 행보에도 관심이

프로축구 수원·성남 선두 다툼

한기위 대접전에서 수원이 패하고 성남이 이길 경우 골득실에서 앞서는 성남이 선두에 오르게 된다. 수원은 울산으로, 성남은 대전으로 가 승점 3점을 위한 경쟁을 펼친다.

6강 티켓을 위한 하위권들의 반격도 관심을 끈다. 9위 대구 FC(6승1무10패·승점 19), 10위 대전 시티즌(3승8무6패·승

점리고 있다. 공격의 핵심 박주영이 AS 모나코로 이적한 뒤 첫 경기를 갖는 서울은 제주종합운동장으로 내려가 제주 유나이티드와 일전을 펼치게 된다.

K-리그 경기가 일제히 진행되는 13일 전국 7개 축구장에는 풍성한 한기위 선물도 쏟아져 연휴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허정무호' 이대론 안돼!

허정무호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부터 무승부를 거두며 맥이 풀릴까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진 북한과 최종예선 B조 1차전에서 '19세 막내' 기성용(서울)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을 확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B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북한에 비기면서 충격을 받은 허정무 감독은 반복되는 공격력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첫 출발 이후 지금까지 보

여준 대표팀의 경기력을 볼 때 확실한 대책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허정무호는 다음달 15일 치러질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상승세로 반전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가시밭길 행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출발 첫 경기부터 패배로 시작한 허정무호는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부터 선제골을 넣고도 허술한 수비조직력과 결정력 부족에 약점을 드러내며 번번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허무한 결과를 반복했다.

최종예선에서도 상황은 반복됐다. 지난 1

일 첫 소집을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영록(서울) 카드'도 뜻밖의 부상으로 써먹지 못했고, 그동안 대표팀 공격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부상 우려에 따른 소속팀의 차출 불가 조치로 전술 운영에 타격을 받고 말았다.

허정무호가 본선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51위)을 앞서고 있는 이란(46위)과 사우디아라비아(48위)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중동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전적에서 두 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종예선 2차전 상대인 UAE(109

반복되는 공격·수비 허술
내달 UAE전도 고전 예상
본선행 위해 새 전략 시급

위)에 7승5무2패로 앞서는 게 위안거리다. 이란의 경우 지난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을 거뒀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서는 지난 1989년 10월 26일 2-0 승리 이후 무려 19년째 6경기 연속 무승 행진(3무3패)을 이어오고 있다.

최종예선 2차전을 시작으로 잇따라 세 경기 연속 중동 팀과 대적해야 하는 허정무는 철저한 상대 분석과 세대교체의 마무리를 통해 새롭게 팀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연합뉴스

북한전 동점골... 허정무호 '구세주' 기성용

고교때 호주 축구유학 새로운 스타탄생 예고

아버지 기영욱씨 금호고 감독 출신

축구대표팀 '막내' 기성용(19·FC 서울·사진)이 위기의 허정무호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기성용은 지난 10일 밤 중국 상하이 흥커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B조 1차전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24분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다.

후반 19분 북한 흥영조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을 때만 해도 한국은 위기에 휩싸였다.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며 골 기회를 계속 허용하며 패색이 짙게 드러났다.

하지만 선제골을 헌납한 뒤 5분 만에 터진 기성용의 동점골로 한국은 겨우 1-1 동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성용의 이날 골은 2008 베이징올림픽 8강 진출 실패에 이어 한국 축구에 대해 쏟아질 팬들의 비난과 외면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한 방이었다.

특정 장면은 기성용의 골 감각이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김남일(빗셀 고베)과 함께 중원에서 1차 수비벽을 쌓는 '더블 볼란테' 역할을 맡았지만 전방으로 자주 나서며 공격 본능을 내비쳤던 기성용은 후반 24분 미드필드 왼쪽에서 김두현(웨스트브롬)이 넣어진 크로스를 아크 부근에서 가슴으로 트래킹한 뒤 뒤로 넘어지며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기성용의 발등을 떠난 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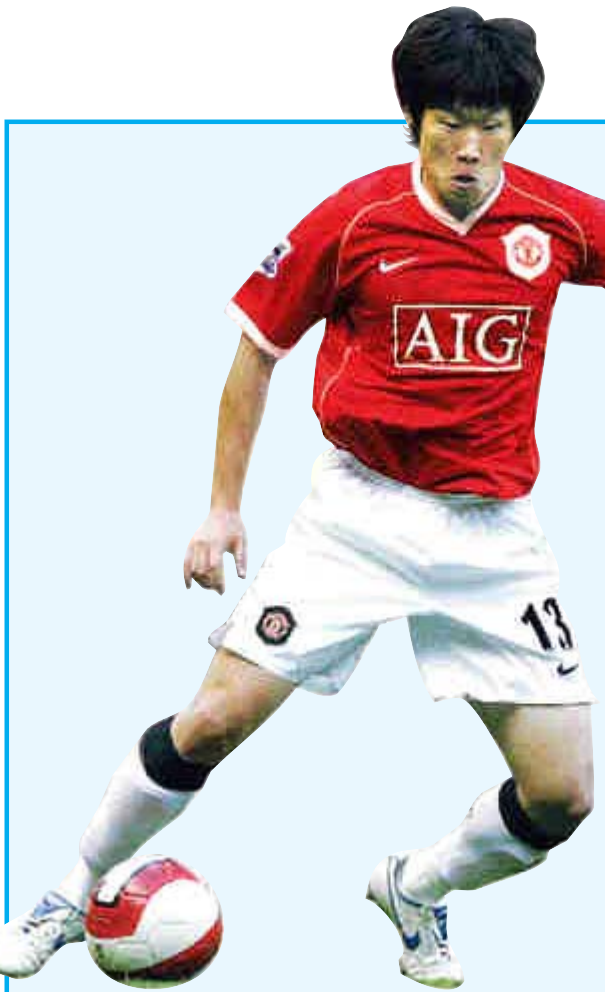
견고하게 잠겨 있던 북한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들어갔다.

광양제철고 교사인 축구인 출신 아버지 기영욱(51)씨의 영향으로 축구를 시작한 기성용은 고교 시절 호주에 축구유학을 다녀왔으며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20세 이하 대표팀, 최근 올림피아 대표까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유망주.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욱씨는 광주 금호고-전남대에서 중앙수비로 활약했으며 1982년 국민은행에서 은퇴한 후 금호고 감독을 지냈다.

기성용은 2006년 서울에 입단했고 곧바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주전으로 발탁되면서 급성장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기성용은 두번째 A매치인 북한 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한 듯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

'쌍박' 한기위 출격



◀ 맨유 박지성
13일 리버풀 원정 경기 정규리그 첫 선발 기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대표팀에서 빠진 해외파 박주영(23·AS모나코)과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이번 주말 동반 출격을 노린다.

프랑스 프로축구 모나코로 이적한 박주영은 추석 당일인 14일 오전 2시(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모나코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릴 FC로리앙과 정규리그 5차전 출격이 매우 유력하다. 박지성 역시 13일 저녁 그라운드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 입단 후 실전 테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온 박주영이 프랑스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프랑스 지역 일간 '니스-마르탕'도 10일 "박주영이 로리앙과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AS 모나코 박주영 ▶
14일 로리앙과 홈경기 프랑스 데뷔전 될 듯

면서 "히카부두 고메스 모나코 감독이 그의 출격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 무릎 재활에 집중해 온 박지성은 박주영이 출격하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 8시45분 리버풀과 원정 경기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다. 박지성이 이 경기에 출전하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첫 출격이 된다.

또 '스나이퍼' 설기현(29·풀럼)은 같은 날 불턴과 홈 경기를 치른다. 독일로 무대를 옮긴 이영표(31·도르트문트)도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북대결에 선발로 나선 김두현(26·웨스트브롬)은 곧바로 소속 팀으로 복귀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큰 탓에 같은 날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우디, UAE에 2-1 역전승
1승 1무... 북한과 공동 선두
월드컵축구 2차 최종예선 B조

한국이 속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역전승을 거두고 북한과 공동 선두로 나섰다.

사우디는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UAE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홈 팀 UAE를 2-1로 눌렀다. 지난 7일 이란과 1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던 사우디는 1승1무가 돼 전날 남북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북한과 공동 선두가 됐다.

한편 A조에서는 틈시드를 배정받았던 호주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파르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26분 터진 스콧 처퍼필드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1-0으로 이겼다.

카타르는 바레인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세바스티안 콰타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21분 압둘라 파타디에게 동점골을 내줘 결국 1-1로 비겼다. 카타르는 1승1무로 조 선두를 지켰다.